

소비쿠폰 효과 만점…소상공인도 소비자도 활기

“옷 사고 기름값 부담 줄어”…귀화 외국인도 “오랜만에 마음껏 소비”
국수가게 “아르바이트생 충동원” 슈퍼마켓 “하루 손님 50명씩 늘어”

정부가 제공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10일이 지난 가운데 광주·전남 시민들은 물론 소상공인들까지 활기가 돌고 있다.

평소 사고 싶었던 것을 즉각 소비쿠폰으로 구입했다는 이부터 생활비에 보태 쓴 시민, 아이들에게 줄 먹거리를 잔뜩 산 시민도 있었다. 일부 시민은 쓸만한 소비쿠폰 사용처를 찾지 못해 한 폰도 못 쓰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소상공인들 또한 오랜 시간 이어진 경기 침체 끝에 손님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는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김가영(여·28·광주시 남구)씨는 “본적지가 나주로 돼 있어서 나주에서 소비쿠폰을 받았는데, 그날 곧장 평소 사고 싶었던 옷을 사러 갔다”며 “어름에 입을만한 외출복이 별로 없었는데 상·하의 세트로 새 옷을 장만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서영경(여·57·담양군)씨는 “이번 달 기름값 부담이 확 줄었다. 지금까지 기름값에 8만원 사용했는데, 평소였다면 부담이 큰 금액이지만 나라에서 준 돈으로 결제하니 마음이 한결 편안했다”며 “남은 금액도 전부 기름값으로 사용해서 다음 달 생활비까지 줄여 볼 생각이다”고 웃었다.

귀화한 외국인들도 소비쿠폰으로 실컷 소비생활을 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는 분위기다. 프랑스 출신으로 한국인과 결혼한 예블린(여·33·영광군)씨도 “식비 걱정이 확 줄었다. 소비쿠폰으로 전통시장 가서 활태도 구매하고, 베이커리에서 크루아상, 샌드위치도 구매해 아이들과 나눠 먹었다”며 “간만에 동네 유명한 카페도 들러서 커피를 마시는 등 오랜만에 마음껏 돈을 썼다”고 했다.

사용처가 햇갈려 아직 소비쿠폰을 쓰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김정단(58·광주시 광산구)씨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 소비쿠폰을 쓸 수 없는 곳이라 계산을 못 하고 그대로 두고 나왔다”며 “나중에 물어보니 정육코너에서만 소비쿠폰을 쓸 수 있었다. 같은 브랜드의 다른 등

네 마트에서는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던데, 자세히 알아보고 갈 걸 그랬다”고 혀를 찼다.

서영옥(여·59·순천시)씨는 “평소 일이 바빠서 주말에 짬을 내 순천역에서 커피 한 잔 사먹었는데, 알고보니 소비쿠폰을 쓸 수 없는 매장이라 한 폰도 못 썼다”며 “사용처를 좀 더 알아보고, 전통시장 등지에서 식재료를 사는 데 쓸 계획이다”고 말했다.

거주지와 근무지가 다르거나, 등본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이들도 미처 소비쿠폰을 쓰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소상공인들은 손님들이 체감할 수 있을만큼 부쩍 늘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평일에는 이전보다 30%이상 손님이 늘어난 것 같고, 주말에는 손님이 50%정도 늘어난데다 손님 중 70~80%는 소비쿠폰으로 결제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들 설명이다.

담양군에서 국수 가게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소비쿠폰에다가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손님들이 몰려들고 있어 매출이 부쩍 늘어난 것이 체감된다”며 “평소 직원이 2~3명 있어도 될 수준이었는데, 요즘은 아르바이트생을 충동원해 7~8명씩 직원을 배치해도 손이 모자란다”고 웃었다.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한 슈퍼마켓 업주는 “손님 수도 하루에 50명씩은 더 늘어난 것 같다. 손님 중에 70%는 소비쿠폰을 쓰고 있다”며 “특히 생활필수품을 많이 사 가는데, 전에는 3만원정도 구매를 했다면 요즘은 4만 5000원씩 구매하는 등 ‘퐁’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31일 오후 1시 기준 전체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5061만명 중 90.05%인 4555만명이 소비쿠폰을 신청해 총 8조 237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광주는 126만명(신청률 91.21%), 전남은 155만명(87.73%)이 신청했다.

정부는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소비쿠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



31일 오전 6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현장에서 수도관 파열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시 서구 제공〉

또…광주 금호동 도시철도 공사현장 상수도관 파열

1시간 만에 수돗물 9000여t 누수

광주시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 누수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23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도 같은 사고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오는 2029년까지 2단계 공사도 이어질 예정이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광주시 서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현장에서 수도관 파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상수도관(지름 600mm)이 파열되면서 1시간 만에 수돗물 9000여t이 누수됐다. 인근 도로 일부가 무너지고 20개 상가가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서구와 상수도사업본부는 파열 원인으로 관로 노후화로 상수도관 접합부가 이탈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은 지난 2023년 6월 1일 상수도관 파열 사고가 난 곳으로부터 불과 50여m 떨어진 곳이다. 당시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재발대책’으로 사고 도관 보강 조치, 정기 합동점검, 도시철도구간 상수도시설 주변 작업시 사전협의 및 입회요청 등 대책을 내놨지만, 그 이후로도 사고가 반복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에서는 2020년 1건, 2021년 8건, 2022년 7건, 2023년 14건, 2024년 4건, 2025년 1건 등 상수도관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 유실된 수돗물은 총 5만5330t다.

전문가들은 상수도관은 압력을 줘서 물을 공급하는 만큼 작은 충격에도 쉽게 파손되는데, 작업

자들이 공기 압박 등으로 급박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광주 시내에는 총 4128km의 상수도가 매설돼 있으며 이 중 2186km(52%)는 설치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이다. 또 227km는 노후화로 교체·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상수도가 노후한 것을 알면서도 안전에 투자를 할 여유도 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일을 시켜 놓고, 뒤편에서는 ‘12월 22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식으로 작업자들을 재촉하니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며 “최저가 입찰제, 공기 단축 등 현장의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 최고의 재발 방지 대책은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 작업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노인 84% “소비쿠폰 식료품 등 생활용품 구매”

빛고을노인타운 이용객 조사

최근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노인들에게 경제적 지원, 소비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등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 인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60세 이상 노인 이용객 중 1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발표한 '소비쿠폰 활용 및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8%는 소비쿠폰을 '물질적 지원'으로, 15.4%는 '심리적 위로'로 여겼다. 또 전체 응답자의 96.0%는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소비쿠폰은 저소득 노인의 소비를 확대하고, 골

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57.9%는 한 달 생활비가 100만원 안팎인 가운데, 응답자의 42.3%가 '쿠폰 미지급 시 소비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들이 소비쿠폰을 이용해 구매한 물품 및 서비스로는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이 83.7%로 가장 많았고, 외식·간식(32.7%)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쿠폰 사용처는 동네 가게 및 마트(55.8%), 전통시장(47.1%)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정부 정책과 시정에 관심이 생겼다', '사회가 나를 챙겨줘서 고맙다'는 응답자 비중은 84.6%에 달하는 등 소비쿠폰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전남 8월에도 극한 폭염 계속된다

무더위 10월까지 이어질 수도

7월 동안 '불볕 더위'가 이어졌던 광주·전남에 8월에도 극한 폭염이 계속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1일 8월 2주차부터 9월 1주차까지(8월 11일~9월 7일) 날씨 전망을 분석한 '1개월 전망'을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8월 2주차(11~17일) 한 주 동안의 평균 기온이 평년(25.6~27.0도)보다 높을 확률은 50%인 것으로 분석됐다.

18일부터 9월 7일까지는 평균 기온이 평년

(23.2~26.4도)보다 높을 확률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한 달 내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무더위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열대 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온도와 봄철 유럽의 적은 눈덮임으로 인해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 순환이 강화될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무더위가 9월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전망' (8~10월)에 따르면 9월의 기온이 평년(21.7~22.3도)보다 높

을 확률이 50%인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과 북대서양의 높은 해수면온도로 인해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 순환이 강화되면서 기온이 상승,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열기는 10월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10월의 기온이 평년(15.8~16.6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일 것으로 내다봤다.

8월 강수량은 평년(192.2~322.0mm)과 비슷할 확률이 50%로 예측됐다. 9월은 평년(78.9~220.1mm)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 10월은 평년(78.9~220.1mm)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로 예보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신탁
신탁
신탁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